

진로인터뷰

1. 졸업 후 어떠한 과정을 지나오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한양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한국무용 전공으로 입학하여 한양대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복수전공을 하여 두개의 학사 취득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후 이 두 전공을 살려 새로운 길을 찾아 요가복 스포츠웨어 디자인 회사에 입사하여 신입 디자이너로 사회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디자이너로 입사했지만 무용 전공도 살려 본인이 디자인한 옷의 활동성과 편안함을 누구보다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것 같다는 회사의 모델 제안을 받고 디자이너와 회사 전속모델로 활동하며 디자인 회사의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2년간 다니던 첫 직장에서 퇴사하고 많은 디자인 회사의 업무과약 및 시스템을 파악하고 거래 업체 확보를 위해 6개월에 한번씩 같은 계열의 스포츠웨어 회사를 옮겨 다니며, 디자인과 수출 생산관리 등 디자이너로서의 활동성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회사 업무시간외의 시간 대부분을 무용연습복과 무대의상 공부를 하며 개인 디자인 작업과 개인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6살때부터 무용을 시작하여 대학교 과정까지 계속해서 무용을 하였기 때문에 제 삶의 일부본인 무용을 놓을수 없어서 유아신체



발달 발레강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개인 연습을 하며 무용강사로 백화점, 문화센터, 기업어린이집, 놀이학교, 무용아카데미 등에서 유아신체

발달, 키즈발레, 국악, 한국무용 등을 가르치는 강사활동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하나둘씩 제 열정으로 직접 디자인한 무용복을 대량생산하여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하여 무용연습복을 판매하고 맞춤무대의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골프웨어, 기업 사은품, 기업 유니폼 등 디자인 생산을 오더 받아 제작하며 최근에는 요가복 홍콩수출등 개인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어요. 20대는 나의 전공을 살려 많은 경험을 하자는 목표가 있었고, 30대로 접어든 2017년 올해에는 하고싶은 공부를 하기위해 대학원 준비를 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2. 의상을 만들게 되신 계기는요?

어렸을때부터 무용을 하며 작품을 받고 그 작품에 맞는 의상을 맞추 때마다 잠깐 활동하셨지만 양장기능사 할머니와 디자이너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유독 무용 의상에 기대감과 관심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무용을 하

기를 바라셨지만 무용의상을 만들고 싶었던 마음이 계속 커져 저 스스로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교 1학년때 신사동에 위치한 국제패션디자인학원을 다니며 의복패턴과 재봉실습을 수료하여 의류학과 수업을 듣기 위한 과정을 거치며 저의 열정을 확인했어요.

디자인학원 수료후 의류학과 수업을 선수강하여 듣고 의류학과 학업분위기와 좋은 교수님들 덕분에 복수전공 신청을 하여 의류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류학과에서 소재부터 패턴, 일러스트, 상품기획 졸업작품까지 의상을 만들수 있는 이론과 실습과정을 거쳤고, 무용학과 수업을 통한 무용작품을 해석하고 움직임의 이론과 실습 과정을 바탕으로 무용과 디자인 두개를 융합한 무용의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3. 의상 디자인과 작업을 하실 때 무엇을 중요시 하시는지요?

저는 크게 편안한 활동성, 작품의 해석,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 이 세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번째 편안한 활동성은 일상복에서도 편안함과 디자인을 중요시 하지만 신체의 활동성이 큰 무용의상이나 스포츠웨어는 신축성과 내구성이 좋은 프리미엄 소재와 인체에 맞는 패턴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작품의 해석은 안무가의 의도와 작품의 컨셉을 해석하여 의상이 그 작품에 자연스럽게 녹아 표현될 수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무용 무대의상의 비슷한 소재에서 염색 컬러와 기법만 다르게 한것이 아닌 그 작품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입 소재를 써치하여 소재의 차별화와 무용 동작에 따른 디자인 디테일을 포인트로 동작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퍼스널 이미지 메이킹은 의상을 갖춘 사람의 퍼스널 컬러와 바디라인이 예뻐보일 수 있는 퍼스널 라인을 찾는 것 입니다.

4. 현재 의상디자인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무용전공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상을 진로로 생각하고 있는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오랫동안 무용을 하고 의상디자인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단순히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본인의 열정을 스스로 확인하고 왜 하고 싶은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하는것이 정말 행복하다면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의상디자인 뿐만 아니라 그 어떤것을 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장점을 찾고 전공과 함께 살려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좋을것 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와 저의 대학졸업후의 삶에 대해 관심 가져주셔서 한양대 무용학과에 감사드립니다.

-08학번 최고은

자유컬럼

제 29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성실이가 되다



11월 1일, 국립 현충원으로 향했다.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참가자들은 버스에 올라탄 상황이었다. 버스에 올라탄 후 어색함과 긴장감으로 모두들 미소만 띠며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5분 만에 사라지고 어느새 수다 버스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현충원 참배를 위해 단체 티셔츠로 갈아입고 각종 대회의 상징인 띠를 둘렀다. 그 후에 우리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했다. 아까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로 다들 진지하게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끝나고 합숙장소로 향했다. 합숙기간 동안 개개인의 모든 행실과 참여도를 평가받고 11월 7일 저녁6시에 워커툐 본선무대에 오른다.

우리는 각자의 방을 배정받아 이동했고, 곧 환영의 밤이 시작되었다.

합숙시작 다음 날은 평화, 환경 포럼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날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봉사를 했다. 11월 5일, 드디어 대회 전 예선심사가 시작되었다. 참가자들은 학사모를 쓰고 자신을 소개하며 어필했고 이어서 즉석 심층 질문이 이어졌다.

한국의 청년 실업문제, 세계평화 봉사단의 의미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들이 나왔고 모두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회는 단순히 미인대회가 아닌 지, 덕, 체를 갖춘 대학생을 선



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참가자 모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어 실력 또한 출중했다. 오후6시 대회의 막이 오르고 단체수화로 시작을 알렸다. 다음은 학사모를 입고 자신을 알리는 시간, 참가번호 10번 정혜운을 불렀다. 내 소개로 시작하여"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로 마무리 했다. 이어서 각종 시상식이 시작됐고 애초 상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었던 나는 그저 활짝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성실상은 모든 활동에 가장 성실히 임했던 참가번호 10번 정혜운 학생입니다." 라는 사회자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 상의 의미는 대학생만이 참가할 수 있는, 단순한 미인대회가 아닌 지성과 건강한 몸을 갖춘 세계 대학생을 뽑는 대회였기에 나에게겐 그 어떤 대회보다 값진 추억이고 평생 잊지 못할 재산이다. 이 대회는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얻을 수 있었던, 대학시절 버킷리스트 중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정혜운 기자

재능기부

교내 십시일반 재능나눔 장학금

이든 아이빌과의 인연은 학장님이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회를 주심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든 아이빌은 성동구 하왕십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보육원으로, 1950년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육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곳에서 생활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 다섯 명, 여학생 다섯 명을 대상으로 한 시간 동안 한국무용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든 아이빌의 학생들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서 부끄러움이 많고 자기감정 표현이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긴장되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준비했다.

우려와는 달리 나를 반겨주는 아이들은 기대감에 많이 상기 되어있었고, 수업이 진행이 힘들 정도로 집중도가 낮았다. 예상치 못한 첫 수업의 상황, 너무 당황하여 아이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수업 분위기는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그렇게 첫 수업을 마치고 나는 수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다.

진짜나는 첫 수업에 이어 현재까지 약 40주차의 수업을 진행하며 많은 시행착오와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다양한 경험을 겪고 나니 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하는지,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을 배우며 학생들보다 내가 더 많이 배움을 얻고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

앞으로 8주정도 남은 기간 동안 학생들과 더 좋은 추억,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기대한다.

-진솔 기자